

추모 발원문

세연을 다한 신타원 김혜성 각령의 공적을 함께 기리고, 극락왕생을 뜻
모아 기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정성으로 발원하오니 자비하신 원력
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하여 몸으로 행하신 일생의 노고였기에 그 덕화를 받은 많은
이들이 슬픔을 더하고 있지만, 이는 당신처럼 맑고 행복하게 정진하라는
축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전의 모습을 돌아보는 많은 이들이 곳곳에 남긴 공덕의 자취에 숙연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정법을 수호하고 한결같은 수행으로
일관하였으니, 선업의 공덕이 청정한 지혜의 광명으로 이어지고 덕화를
입은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생에 사사로움 없어 후덕하고 아름다운 공덕행을 쌓았으니, 화신불의
영접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기에, 이것으로 애도하는 이들은 슬픔
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승에 남긴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그렇게 바라시던 정토에서 참되
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원합니다. 이승에 남은 인
연들이 건강하게 뜻하는 일 성취하고, 위없는 깨우침에 이르도록 생전같
이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추모의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종사에 이르게 한 지극한 수행이었기에, 숭고한 뜻을 표상으로 삼을 인
연 맺은 사람들이 거듭하여 발원하고 있습니다. 극락왕생 하시더라도 수
많은 인연들을 이롭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